



청춘을 보낸 연구실... 나의 꿈과 미래

글_ 김연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대사연구센터 독성연구팀 박사과정

“
연구실의
연구 환경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연구실 식구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신념과 열의는
주위의 열악함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그들과 함께할
미래는
점점 밝아질
것이라 믿는다.”

이 공계 학부시절, 친구들은 많은 전공서적과 씨름을 해야했던 필자를 안타까운 듯 바라보곤 했다. 졸업하면 끝이라 생각했던 책과의 싸움은 세포와 유전자와의 씨름으로 연장됐고, 어느새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석사과정 후배들을 지도하며 연구하는 박사 말년차가 되어있다. 학부시절에 대학원생들을 보며 “어차피 연구할 거면 노벨상 정도는 타야되는 거 아냐?”라며 능력을 과소평가하기도 했었지만, 지금 그 자리에 있다보니 왜 수많은 선배들이 노벨상을 타지 못했으며, 왜 이공계 기피현상이 생기는지에 대해 어렵게나마 느끼게 된다.

어렸을 때는 의사가 되어 생명의 존엄성에 봉사하고자 하는 꿈을 가졌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이 공계를 선택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로 뚫어낸 만큼 연구결과가 돌아오는 것에서 매력을 찾을 수 있었다.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연구를 하기 위해 KIST를 찾았을 당시는 IMF 여파가 들이닥친 상황이었다. 사회적 상황이 그렇다보니 여자동기들 10명 중 5명만이 진학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학원 경쟁률은 높았다. 시간이 흘러 연구실에서 청춘의 시간을 모두 보내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한 실험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과제 수행이 필수이며, 동시에 치열한 아이디어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구 과제를 위해 제안서를 쓰며 고군분투하시는 박사님의 모습과 묵묵히 실험을 하며 실험결과에 일희일비하는 선·후배 연구원들의 미래에 대한 열정을 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본다.

생명과학 분야는 다양한 주제의 연구 속에서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협력이라는 이율배반적인 가치가 공유되는 가운데, 인류의 삶의 가치를 한 차원 높여 주는 연구결과물을 내는 분야이다. 비록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회 곳곳의 많은 변화가 경직된 사회 분위기를 탈피할 수 있게 하듯이 연구소 환경이나 연구원들

을 위한 제도 등에도 변화가 찾아와 자율과 창의 속에서 더욱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멀지않은 미래에 과학 분야에서도 노벨상을 수상하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생활이 비록 일천한 초보연구자이지만, 과학기술은 우리 자신은 물론 사회, 나아가 국가발전의 초석이며 미래라고 믿고 있다. 이제 곧 필자 역시 박사학위를 받고 사회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비록 사회는 그다지 밝은 전망과 유혹을 주고 있지 않지만 이공계를 택하고 학위과정을 시작하고자 결심했을 당시의 포부와 지금의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한 신념은 더욱더 확고해지고 있다.

연구실의 연구 환경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연구실 식구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신념과 열의는 주위의 열악함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그들과 함께할 미래는 점점 밝아질 것이라 믿는다. 이제는 자율성과 창의력의 열린 연구 분위기, 어렵고 힘든 길은 피하려했던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 나아가 선진국과 같은 기업의 높은 연구 참여로 인한 이공계 연구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청춘과 함께한 연구실의 문을 오늘도 희망차고 즐겁게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 ㉯